

【 주간 포커스 】

국제보험회계기준 2단계 공개초안의 내용과 의미

김해식 전문연구위원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측정에 관한 국제보험회계기준(2단계 IFRS4) 공개초안이 지난 7월 30일 발표되었다. 이번 초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부채 측정에 관한 관점이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즉, 초안은 시장에서 매도를 통해 보험부채가 청산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 이행을 통해 청산된다는 관점에서 보험부채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의견수렴을 거쳐 2011년 최종안이 확정되면 2단계 IFRS4는 2013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적립해야 할 준비금 규모가 커지고 공시도 늘어나는 부담을 안게 되지만 보험계약의 투명성이 높아져 자본비용이 줄어들고 기업가치가 제고되는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지난 7월 30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¹⁾는 책임준비금(보험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2단계 공개초안(이하 초안)을 발표하였음.

○ IASB는 보험부채 측정에 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자 2002년 현행 기준서(IFRS4, phase1)²⁾를 발표하고 보험부채 측정을 2단계(IFRS4, phase2)에서 다루기로 결정하였음.

– 따라서 현행 IFRS4는 보험부채에 대해 각국의 기존 회계관행을 허용하는 임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

○ 공개된 초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2011년 최종안이 확정되고 2013년부터 현행 IFRS4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초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회사가 계약만기까지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 이행을 통해 보험부채가 청산된다는 관점에서 보험부채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였다는 점임.

1) IASB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2) IFRS : Internation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 2007년 토론서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유통시장에서 매도할 경우의 가치, 즉 유출가치(exit value)로 평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 초안은 재보험 등 극히 제한적인 유통시장만 존재하는 보험산업의 특징을 감안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 즉 이행가치(fulfillment value)로 보험부채를 평가하도록 함.
 - 따라서 유출가치에 근거한 보험부채 측정과 달리 시장에서 평가되기 어려운 사업비 등 보험회사별 고유 정보를 부채 측정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됨.

□ 한편,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측정³⁾에서 제시된 마진⁴⁾의 경우 3가지 추정방식이 제시되고 있으나, 리스크 마진을 별도로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장이 정리되지 않음.

- 첫째, 초안은 마진을 신뢰구간(VaR), 백분위 기대치(CTE/TVaR), 자본비용의 세 가지 방식으로만 측정할 것을 제시함.⁵⁾
- 둘째, 초안은 마진 구분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가 있음을 명시함.
 - IASB는 마진을 리스크 마진⁶⁾과 기타 마진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공동작업자인 미국 회계기준위원회(FASB)⁷⁾는 이들 마진을 통합하여 제시함.
 - 이런 차이는 매기별 리스크의 평가 여부, 마진의 할인 여부, 신계약비 등에서 상이한 결론을 보이고 있어 최종안을 확정하기까지 마진 구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조정이 필요

□ 또한, 보험부채 측정에서 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이 반영되지 않는 반면, 유동성 제약을 반영하는 안이 제시됨.

- 이는 첫째, 보험회사가 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 둘째, 현금흐름에 대한 할인율로 무위험이자율이 제시되고 있는데, 동 할인율에 유동성프리미엄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된 것임.

3)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의 기대치와 현금흐름의 변동성에 대한 마진으로 구성되는데, 변동성에 대한 마진은 현금유출이 예상과 달리 현금유입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리스크)에 대한 보상, 기대이익 등으로 이루어짐.

4) 기존 보험회계에서는 준비금 측정 시 마진을 따로 측정하지 않고 있음.

5) 마진 추정에는 현금흐름 분포에서 현금흐름의 평균(기대현금흐름)과 특정 백분위 수준까지(신뢰구간) 또는 특정 백분위 수준 이상 부분의 기댓값까지(백분위 기대치)를 마진으로 설정하거나, 변동성 대응에 필요한 자본의 조달비용을 마진으로 간주하는 방식이 있음.

6) 2007년 토론서는 리스크 마진(risk margin), 2010년 초안은 리스크 조정(risk adjustment)으로 부르고 있음.

7) FASB :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물론 투자연동형 보험계약과 같이 현금흐름이 투자성과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경우에는 자산운용수익률 등을 할인율로 사용하는 현행 관행도 허용

□ 이번 초안 발표를 계기로 보험부채 측정에 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

- 초안을 통해 새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데 따른 불확실성은 다소 줄어들 것이나, 이제 보험회사는 1단계와 달리 신계약뿐 아니라 보유계약의 이행계획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초안에 대한 수정이 있더라도 향후 준비금 적립 규모가 현재 수준보다 늘어날 것이 확실하므로 보험회사는 준비금 추가 적립을 위한 충분한 자본조달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 2단계 IFRS4는 그 동안 블랙박스로 여겨진 보험계약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요인들을 명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보험회사로서는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기회이지만, 이를 설명해야 하는 공시부담도 그만큼 커질 것임. KiRi